

생태학적 무의식과 생태 윤리

-이청준 소설의 경우-

우찬제*

- I. 머리말
- II. 밤 산길 독행자의 생태학적 무의식
- III. '감싸안기'의 생태 윤리
- IV. '기다리기'의 생태 윤리
- V. '묻어두기'의 생태 윤리
- VI. 맺음말

이청준에게 있어서 소설은 일종의 '말의 꿈'이다. 그 꿈은 개인의 자유와 진실, 용서와 사랑에 대한 소망으로 스미고 짜인다. 그것은 생명의 총체적인 조화 양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말의 꿈을 위해 그는 자유와 억압, 용서와 복수, 이상과 현실, 존재적 언어와 관계적 언어, 개인의 진실과 집단의 꿈 사이에서 고뇌하고 그것을 종합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이청준의 소설은 근대화 산업화 이후 훼손된 생태학적 전체성에 대한 동경의 형식이기도 하다. 심층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의 소설은 생태학적 전체성의 상실과 회복의 드라마와 관련된다. 특히 그가 후기에 강조한 밤 산길 독행자의 소설 길은 생태학적 무의식을 향해 열린 길이다. 이 길은 근대성과 관련된 훼손과 광기로 인해 억압되었던 생태학적 무의식을 살아있는 기록으로 귀환케 하는 서사적 여정이다. 이와 같은 생태학적 무의식으로 열린 길에서 이청준이 보인 생태 윤리의 세 측면이 주목된다. '감싸안기', '기다리기', '묻어두기'의 생태 윤리가 바로 그것이다. 「새와 나무」에서 보이는 연민과 '감싸안기'의 생태 윤리는 생태학적 진정성과 사람살이의 기반을 환기한다. 「새와 나무」, 「빛새 이야기」, 「축제」, 「당신들의 천국」 등에서 보이는 '기다리기'의 생태 윤리는 생태학적 상생의 지평에서 매우 중요한 미덕이다. 「지하실」, 「이상한 선

*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물] 등 후기작에서 강조된 '묻어두기'의 생태 윤리는 드러내기보다는 감싸고 감춤으로써 오히려 진실의 빛을 밝힐 수 있었던 옛 공동체 구성원들의 속 깊은 윤리 감각을 되살린 결과이다. 이러한 생태 윤리는 오래된 생태학적 무의식으로 열린 길 위해서 서사적으로 재구성된 것들이다. 이와 같은 생태학적 무의식과 생태 윤리 감각들은 이청준의 '말의 꿈'을 심원하게 하는 중심 요소들이다.

주제어 : 생태학적 무의식, 생태 윤리, '감싸안기'의 생태 윤리, '기다리기'의 생태 윤리, '묻어두기'의 생태 윤리, 타자의 윤리학, '새와 나무', 「빛새 이야기」, 「당신들의 천국」, 「날개의 집」, 「축제」, 「지하실」, 「이상한 선물」

1. 머리말

이 논문은 이청준 소설의 핵심적인 특성으로 거론된 대립적인 것들을 종합하고자 한 서사적 의지가 오래된 생태학적 무의식에 기반한 것이었으며, 그와 관련된 의미심장한 생태 윤리를 그의 소설이 심원하게 환기한다는 사실을 논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된 것이다. 특히 '남도 사람' 연작 이후의 이청준 소설은 생태학적 무의식과 생태 윤리의 측면에서 고찰할 때, 가장 핵심적인 특징을 포착할 수 있으며, 『그곳을 다시 잊어야 했다』, 『신화의 시대』 등 후기 소설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 생태학적 비평의 측면에서 생태학적 무의식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그와 관련해 작가 이청준이 서사적으로 형상화한 몇몇 특징적인 생태 윤리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구의 생물이 생물과 미생물의 환경 속에서 생명을 유지 보존하는 상호 작용을 하여 항상 조화를 이루어 살고 있는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¹⁾인 생태학의 관심은 기존의 인간 중심주의

1) 장남기 외 공저. 『생태학』. 아카데미서적, 1993, 13면.

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다.²⁾ 「생태학적 위기의 역사적 근원」(1966)에서 린 화이트(Lynn White)가, 자연을 인간이 착취하고 통제해도 상관없는 대상으로 여기는 인간 중심주의와 과학 기술의 결합으로 1850년 이후 가속화된 산업화가 생태 위기를 가져온 주범이라고 지적한 이래, 여러 논자들의 공통된 견해가 바로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반성인 것이다. 인간 중심주의, 이성 중심주의, 남성 중심주의, 백인 중심주의로부터 벗어나 자연과 인간의 유기적인 질서와 자연적 흐름에 근거한 공생적 세계관을 추구해야 한다고 한결같이 주장한다. 특히 노르웨이의 생태론자 아르네 네스(Arne Naess)가 1972년에 ‘피상 생태학(shallow ecology)’와 ‘심층 생태학(deep ecology)’을 구분하고, 피상 생태학이 아닌 심층 생태학의 입장에서 자연과 인간의 삶을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래 심층 생태학에 대한 관심은 확산되기 시작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서로 유기적 관련 속에서 진정한 정체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심층 생태학적 견해이다. 인간이 자연물과의 즉물적인 대타의식을 버리고, 자연 속에 겸허하게 순명하여 자연물들과 참된 교감과 유대감을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생명공동체적 자아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다. 즉 대우주인 자연의 큰 자아의 실현을 통해서만이 소우주인 자신의 작은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생명 중심의 원리에서 볼 때 자연의 모든 존재들은 인간과 더불어 평등한 권리를 지닌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사고이다. 전체 생태권 내의 모든 존재들은 자연의 깊은 질서와 어우러져 홀로-더불어 생존하고 성장하고 본연의 자아를 막힘없이 실현하면서 생명공

2) 예전대 존 시드는 모든 가치의 근원과 만물의 척도를 인간에 두는 인간 중심주의를 인간 쇼비니즘이라 규정한다. 이는 다른 생명체들에 대한 인간들의 극단적인 배타주의의 소산이라고 그는 강조한다.(John Seed. "Anthropocentrism". Bill Devall & George Sessions ed., *Deep Ecology*. Salt Lake City: Gibbs M. Smith Inc., 1985, p. 243.)

동체를 이룬다. 이러한 심층 생태학은, 근대 문명과 현재의 우리 삶에 전본질적인 반성을 촉구한다. 요컨대 심층 생태학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며, 가치와 윤리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며,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문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심층 생태학은 전혀 새로운 세계관의 탐구인 셈이다.³⁾

이러한 심층 생태학적 관심은 새로운 것이면서 동시에 아주 오래된 것이다. 인간이 역사와 문명을 진행시켜 오면서 부주의하게 놓쳐온 각편들이 바로 이런 관심이다. 인간의 잃어버린 시간은 곧 생태학적 시간이었으며, 전체성의 훼손 역시 생태학적 전체성의 훼손이었다고 말해도 큰 잘못은 없을 것이다.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인간의 역사가 생태학적 전체성, 혹은 생태학적 자기동일성을 상실하는 쪽으로 진행되어오는 동안 문학은 그것의 회복을 희구하며 잃어버린 시간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게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진정한 문학 작품은 그 태도 면에서 이미 심층 생태학과 교감하고 있다는 이남호의 지적⁴⁾은 공감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아주 겸허한 태도로 자연과 교호한다든지, '우주적 연민(cosmic pity)'의 정조로 모든 존재물을 성찰한다든지, 혹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그 자체로 존중한다든지 하는 마음들이 가장 근원적인 의미에서 문학정신이라고 할

3) 이남호, 「문학은 녹색이다」, 『녹색을 위한 문학』, 민음사, 1998, 59~61면 참조. 한편 박이문은 새롭게 지향해야 할 세계관으로서 생태학적 세계관을 들고, 그 특성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 ① 인간 중심주의에서 자연 중심주의로의 시각 전환을 뜻한다. ② 수학적·기계적인 이성애 앞서 미학적·예술적 이성을 더 근본적인 것으로 본다. ③ 인간 태도면에서 자기중심적인 배타성이 공동체 중심적인 포용적 협동으로, 공격적 지배성이 조화로운 유연성으로 전환한다. ④ 대상중심적 인식과 시각에서 가치중심적 인식과 시각으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⑤ 물질적 소유, 쾌락적 경험을 강조하는 현대문명의 가치관에서 관조적 감상, 내면적 체험을 중시하는 가치관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박이문, 『생태학적 문화의 선택』, 『문명의 미래와 생태학적 세계관』, 당대, 1998, 100~103면.)

4) 이남호, 앞의 책, 61면.

수 있을 터이기에 그러하다. 가이아와 더불어 자연과 인간 사이의 동일성을 희원하는 마음의 바탕 없이 참된 아름다움과 시적 정의를 추구하기는 힘들다. 문학이 못 타자들에 대한 끝없는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고 인간과 세계와 자연의 본질을 탐구하면서 의미 있는 가치와 윤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마음 바탕은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고 보겠다. 아르네 네스 이후 여러 진지한 생태론자들이 강조하는 심층 생태학도 이러한 숨결의 확산과 실천에 가까운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니까 참된 문학이라면 이미 심층 생태학이 지향하는 바를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심층 생태학적 관심과 문학적 관심은 기본적으로 상동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생태 비평⁵⁾은 다각적인 시도를 보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 본고에서는 그 상동적 관심의 심층을 헤아리기 위해 생태학적 무의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땅의 목소리』에서 테오도르 로작(Theodore Roszak)은 생태학과 심리학의 학제적 상호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생태학적 무의식의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그는 산업사회와 공모한 광기에 의해 억압된 생태학적 무의식의 심층에서 양자가 공동의 모색을 시도할 수 있겠다면서, “생태학적 무의식에 대한 열린 접근이야말로 제 정신으로 가는 길”⁶⁾임을 강조한다. 로작은 집단무의식에 대한 C. G. 융의 전제가 원래는 인류 이전의 동물과 생태학적 원형들을 포함하는 것이었지만, 나중에 주로 전인류적인 종교적 상징들이

5) 생태 비평(ecocriticism)이란 용어는 1978년 윌리엄 루커트의 “문학과 생태학: 생태 비평의 한 시도”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그 의미는 ‘문학 연구에 생태학적 개념들과 생태학을 적용하는 것’이다.(William Rueckert, “Literature and Ecology”, Cheryll Glotfelty & Harold Fromm ed., *The Ecocriticism Reader*. The Univ. of Georgia press, 1996, pp. 105 ~ 121.) 미국의 경우, 생태문학론이 하나의 비평적 분파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이다.(위의 책, Cheryll Glotfelt의 서문 참조). 한국에서도 김종철, 이남호, 신문수, 신덕룡, 김원중, 신두호, 우찬재 등에 의해 1990년대 중반 이래 꾸준히 생태 비평적 탐문이 이루어져 왔다.

6) Theodore Roszak, *The Voice of the Earth*. New York: Simon & Schuster, 1992, p. 320.

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집단무의식의 본래 의미를 되살려 우주적 진화의 살아있는 기록으로서 '생태학적 무의식'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한다. 로작은 프로이트 학파의 이드라는 개념 또한 고대 생태학적 지혜의 저장소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한다. 이드의 문을 통해 가이아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랄프 메츠너(Ralph Metzner)는 생태학적 무의식의 개념도 호소력 있는 전문 용어가 될 수 있겠지만, 무의식적인 것을 구체화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생태학적 의식 또는 생태학적 양심의 측면을 강조한다.⁷⁾ 본고에서는 로작과 메츠너의 논의를 종합하여, 로작이 강조한 생태학적 무의식을 심층 생태학적 심연으로서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이 교감할 수 있는 열린 기반으로 고려하고, 메츠너의 생태학적 의식 또는 생태학적 양심을 생태학적 무의식이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과정에서의 생태 윤리의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이청준이 소설가 의식의 심연으로 강조한 밤 산길 독행자의 마음을 살피면서 그가 접근하려 했던 생태학적 무의식으로 열린 소설 길의 특징을 살핀 다음, 「새와 나무」, 「빗새 이야기」, 『당신들의 천국』, 『축제』, 「지하실」, 「이상한 선물」, 『흰옷』, 「날개의 집」 등등의 작품에서 보이는 '감싸안기', '기다리기', '묻어두기' 등 생태 윤리의 세 측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밤 산길 독행자의 생태학적 무의식

이청준은 자기 소설에 대한 자의식이 매우 강했던 작가이다. 그는 소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이 소설질로 무엇을 해

7) Ralph Metzner. "The Psychopathology of the Human-Nature Relationship". Theodore Roszak, Mary E. Gomes, & Allen D. Kanner ed.. *Ecopsychology: Restoring the Earth Healing the Mind*. San Francisco: Sierra Club Books. 1995, p. 63.

왔나?”⁸⁾와 같은 절실한 자기 질문을 계속했다. 물론 그는 “무엇을 해왔다”고 답하지 않는다. 다만 “참 많이 헤매고 멀리 흘러왔다”는 정도로 우회한다. 왜 그는 “‘헤매’ 혹은 ‘헤매의 세월’에서 크게 나아가거나 벗어날 수 없었을까? 이청준이야말로 진정한 ‘오로지 소설가였던 까닭이다. 그는 이렇게 적는다. “소설이란 태생이 추상적 대의보다 주체적 삶의 숨결과 족적을 본령으로 삼은 자(者)라, 우리 장삼이사들의 삶이 그러하듯 크고 넓은 대로보다 비좁고 어두운 소로를 함께하며, 그 결핍과 상처를 어루만지고 위무하기를 첫 소임으로 살아온 것이 당연지사.”⁹⁾ 여기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듯이, 이청준의 소설은 깨어진 영혼의 상처와 부끄러움이거나 배반이나 가해, 혹은 폭력의 허물, 내지 삶과 역사의 한을 위무하고 씻어내기 위한 부단한 헤매의 역정이었다. 환부 없는 환자의 속 깊은 결여와 그 심연에 대한 응시를 다룬 등단작 「퇴원」 이후 그는 그야말로 ‘귀항지 없는 항로’에서 헤매의 세월을 거듭하면서, 역동적인 존재의 찢김긋들을 언어적으로 연출해 왔던 것이다.

‘헤매의 세월’ 속에서 이청준은 언제나 소설을 통한 ‘말의 꿈’ 꾸기를 계속했다. 그 꿈은 개인의 자유와 진실, 용서와 사랑에 대한 소망으로 아로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또한 생명의 총체적인 조화 양상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그는 자유와 억압, 용서와 복수, 이상과 현실, 존재적 언어와 관계적 언어, 개인의 진실과 집단의 꿈 사이에서 고뇌하고 그것을 종합하기 위한 상상적 노력을 펼쳤다. 또 다양한 열린 형식으로 상상적 실험을 계속하면서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문학의 지평 내지 지상의 척도를 열어 보려고 했다. 이러한 종합에의 의지나 상상적 실험은 곧 근대화 이후 훼손된 생태학적 전체성의 문제와 대결한 것이라고도 볼

8) 이청준, 「귀항지 없는 항로」, 『그곳을 다시 잊어야 했다』, 열림원, 2007, 274면.

9) 앞의 책, 275면.

수 있다. 다시 말해 생태학적 전체성의 상실과 회복의 드라마를 위해 이청준은 '말의 꿈'꾸기에 그토록 열중했던 것이다. 그것은 생태학적 무의식을 향한 열린 통로 구하기와도 관련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 논문에서는 이청준의 산문과 소설에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밤 산길 독행자' 모티프를 먼저 살피고자 한다. 후기의 소설에 속하는 『인문주의자 무소작씨의 종생기』는 무소작씨의 일대기를 통해 이야기와 작가의 탄생과 그 성격을 형상화한 소설인데, 여기에서도 그 '밤 산길 독행자' 모티프가 중요한 구성적 기능을 한다. 고향 참나뭇골을 떠났다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고향길을 찾은 무소작씨는 눈 내리는 겨울 밤 산길을 홀로 걷게 된다. 세월의 풍상으로 변화된 산천으로 인해 길이 확실치 않다. 반대쪽에서 오던 사내에게 이 길이 맞는지를 묻는다. 그러니까 사내는 이렇게 대답한다. "거 오다 보니 산길이 꽤 멀던데 걸음을 좀 서둘러 가 보시오. 조금 전에 그쪽 길로 노형을 앞서 간 사람을 보았으니, 부지런히 쫓아가면 서로 길동무를 삼아갈 수 있을 거외다."¹⁰ 이렇게 선행자의 행로를 들은 무소작씨는 불안이 가시고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낀다. "차가운 눈발까지 분분한 이 적막스런 산길에 사내가 그 선행자의 행로를 일러 준 것이 그의 발길을 한결 가볍게 해주었다."¹¹ 그 산길은 "구불구불 골짜기와 산비탈이 연이어진 이 길의 행로 중엔 그 노송 숲 외에도 '도깨비 씨름판'이며 '도둑놈 골' '여우 바위' 따위 지나면서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는 길목이 여러 곳 있"¹²는 그런 길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내 무소작씨는 예전 고향 사람들의 말법을 떠올린다. "옛날 참나뭇골 사람들은 이 길을 지나다 마주 오는 사람을 만나면 흔히 '좀 전에 한 사람이 길을 앞서 가더라'고 서로간에 짐짓 선행자를 일러주는 게 예사했

10) 이청준, 『인문주의자 무소작씨의 종생기』, 열림원, 2000, 52면.

11) 앞의 책, 53면.

12) 앞의 책, 55면.

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 으스스한 행로에 앞 사람을 좇다 보면 마음의 위안도 주고 노정도 한결 빨리해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¹³⁾ 이 밤 산길 독행자 모티프에 대해 작가는 산문에 서 다음과 같은 자기 소설 일의 성격과 비슷하다고 밝힌 바 있다.

첫째, 어둡고 무서운 밤 산길 행은 장애 많고 의지 없는 우리 삶의 모습이요, 그 삶을 베끼는(모방) 소설이란 그렇듯 막막한 밤 산길의 노정 중에 그 보이지 않는 선행자의 발길을 외롭고 절박한 심중의 한 지표로 상정해 봄으로써 나름대로의 위안과 용기를 얻고자 하는 일과 맞먹는 것이라는 생각-, 둘째는 그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노중의 대화는 어느 경우든 상대방의 남은 밤길에 위안과 용기를 주기 위한 허구의 성격이 짙은 수사인 바, 그것이 바로 소설의 허구성 또는 그 목적과 통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 산길의 ‘거짓말’은 그걸 곧이들은 사람에게나(오죽하면!) 위안과 용기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작에 그 선행자를 따라잡았을 경우엔 이후부터 그 ‘허구’가 ‘현실’ 자체로 환원되고 만다는 점에서도 소설과 닮아 있다.¹⁴⁾

“도깨비 씨름판’이며 ‘도둑놈 골’ ‘여우 바위’ 따위”가 환기하는 것처럼 밤 산길은 온갖 불안 신호들로 가득하다. 이러한 불안의 신호들은 자유롭고 평화로워야 할 인간의 영혼이나 넉넉한 생태학적 무의식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편안의 결여로 불안에 사로잡힐 수 있는 주체에게, 마주 오던 사람이 조금 전에 먼저 길을 간 사람이 있다며 선행자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이 옛날 참나뭇골 사람들의 습성이라고 했다. 이 메시지의 진위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그 말건넌의 마음바탕이며 소통 효과이다. 마음바탕이라면 곧 자애와 평화의 심성일 터이다. 이는 오래된 생태학적 무의식의 구체적 현전의 한 표정이기도 하다. 효과 또한 상당하다. 불안한 밤 산길 독행자로 하여금

13) 앞의 책, 55-56면.

14) 이청준, 「밤 산길의 독행자(獨行者)들」, 『머물고 간 자리』, 문이당, 2005, 136-138면.

위안과 용기를 지니게 하여 그 말을 듣기 전보다는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소통 효과의 심층 기저에서 생태학적 무의식으로 열린 마음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 마음의 길이 곧 소설의 행로이기도 하다는 것이 작가 이청준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소설 쓰기란 현실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 건네는 밤 산길 독행자의 위로의 말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청준은 현실에서 고단한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위로의 말을 진실하게 전하기 위해 평생 소설 외길을 걸어온 작가이다. 그렇다고 해서 감성적 이야기나 허황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려 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이청준은 누구보다도 성찰적이었고 비판적이었으며 부단히 새로운 이념의 문을 열어 보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생태학적 전체성이 상실된 현실에서 대립하고 상충하는 것들 사이에서 고뇌하면서 이를 상상적으로 종합하기 위한 작가의 서사적 의지는 기본적으로 열린 생태학적 무의식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현실에서 맺힌 한들을 말로, 소리로, 풀어 한 맺힌 영혼들을 위무하려 했던 이청준의 문학은, 자유로운 영혼의 비상학을 위한 헌가(獻歌)였다. 그가 시종 응시하고자 했던 생태학적 무의식은, 그리고 거기서 연원된 구체적 형상화 작업은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어느 순간에도 자신이 이룬 서사적 자리에 머물지 않고,¹⁵⁾ 부단히 열린 산문정신과 부정정신으로 새로운 문학 세계를 열어 보이려 했다. 이런 문학적 태도 또한 생태학적 무의식에 터발을 둔 그의 ‘말의 꿈’과 관련된다.

15) 다른 자리에서도 언급했지만 이와 같은 이청준의 문학적 태도는 도가적인 측면에서 상고할 여지가 많다. 가령 노자의 『도덕경』의 다음과 같은 부분을 보기로 하자. “만물이 잘 자라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인도하려하지 않고, 잘 살게 해주고도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하지 않으며, 무엇을 하되 자신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는다. 공이 이루어져도 그 이룬 공 위에 자리잡지 않는다.”(“萬物作焉而不始，生而不有，爲而不志，功成而弗居”，老子，『道德經』2章). 이런 도가적 태도는 또한 생태학적 무의식에 기반한 생태학적 진정성의 세계와 통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한다.

III. '감싸안기'의 생태 윤리

앞에서 언급한 이청준의 소설적 꿈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작품은 '南道 사람' 연작의 하나인 「새와 나무」이다. 표제인 '새와 나무'의 비유부터 그 의미가 각별하다. 이는 작가 자신이 산문을 통하여 나름대로 해석을 해놓은 것이기도 하다. 나무는 “혼자서 수분을 빨아들이고 햇빛을 취하여 줄기를 키우고 잎을 펼치며 열매를 맺는” 자족적인 실체이다. 나무 잎들이 무성해지면 새들이 찾아들고 아름다운 노래가 깃들어진다. “높고 울창한 나무 가지 속에 갇가지 새들이 날아들어 그 낭자한 노래 소리로 하여 나무와 새가 하나의 삶으로 어우러져 합창을 하는 그런 사랑의 나무”, 바로 그것이 이청준이 소설로 꿈꿀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힘찬 생명과 삶의 나무, 혹은 자유와 사랑의 빛의 나무”¹⁶라고 한다. 얼핏 보기에도 『莊子』의 「齊物論」에 나오는 天籟 즉 하늘의 통소 소리를 떠올리게 한다. 즉 온갖 소리들을 나름의 조화 속에 잠기게 하는 자연의 절대음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따로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러한 혹은 모든 조화를 자연의 절대 속에서 차지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 세상의 모든 소리들이 저절로 조화를 획득하여 어울리는 그런 합창이다. 그런 조화와 합창이 가능한 것은 생태학적 무의식이라는 공분모 때문일 것이다. 새와 나무에 관한 이청준의 꿈, 혹은 이청준의 합창은 생태학적 무의식에 기반한 그런 경지를 동경한 것처럼 보인다.

「새와 나무」는 소리(관소리)를 찾아 남도를 순례하던 한 나그네가 외딴 산골에서 우연히 '나무'와도 같은 사내를 만나 '빛새' 이야기를 듣는 이야기다. 정처 없이 남도를 떠돌던 나그네가 폐원과도 같은 과수원 비슷한 수림에서 한 사내를 발견하는데, 그

16) 이청준, 「존재적 언어와 관계적 언어 사이에서」, 『말없음표의 속말들』, 나남, 1985, 142~143면.

가 마치 “한 그루의 나무처럼 보였다.”¹⁷⁾고 서술자는 적는다. 사내는 나그네를 마치 아는 사람을 부르듯 손짓하여 부르고, 나그네도 무언가에 홀린 듯 그 사내에게 다가간다. 사내는 나그네를 청해 정겹게 저녁을 대접하고 잠자리까지 제공한다. 밤늦은 시간까지 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중심 이야기는 크게 보아 둘이다. 형의 이야기와 어느 시인의 이야기가 그것이다.

사내에게는 형이 있었는데, 가정 형편상 소학교 졸업 후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다. 다른 아이들이 공부를 하러 도회지로 떠난 다음 형은 하릴없이 연날리기로 소일하다가 하늘 높이 떠오른 연이 실을 끊고 날아가 버리는 것을 보고는 그도 연처럼 도회지로 떠나고 만다. 아들의 가출에 황망해 하던 어머니는 이때부터 빗새[雨鳥] 이야기를 하면서 집 앞에 작은 동백나무 한 그루를 심어 정성껏 돌본다. 어머니가 둘째 아들(사내)에게 들려주었다던 ‘빗새’ 이야기란 무엇인가. 이미 이청준이 1977년에 「빗새 이야기」란 제목의 짧은 콩트를 발표한 적이 있거니와, 이 콩트의 이야기는 「새와 나무」(1980)서도 중핵적인 의미를 형성한다. 빗새는 봄부터 가을까지 비가 오는 날에만 구슬프게 울어댄다는(허구적인) 새다. 비가 와도 제 몸 하나 깃들일 등지마저 없는 새이기에 날씨가 굶으면 그렇게 젖은 몸을 실 의지를 찾아 빗속을 울며 헤매 다닌다는 것이다. 어머니가 이런 빗새 이야기를 하면서 잎과 가지가 무성한 동백나무를 심은 것은, 일차적으로는 빗새에게 의지처를 제공하려는 마음이겠으나, 다른 측면에서는 집나간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성공하지 못한 아들이 집에 돌아와 크게 자란 그 동백나무를 보면서 ‘나무’와도 같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린다. “긴 세월 허구한 날 어느 골목을 헤매고 다녔더냐. 바람 차고 어두운 밤인들 어느 한테다 의지를 삼았더냐.”는 어머니의 말에 남루한 귀향

17) 이청준. 「새와 나무」. 『서편제』. 열림원. 1998, 94면.

자는 “바깥 세상을 나가 보면 어머니같이 자식을 일찍 객지로 내보내고 사는 노인네들을 자주 만날 수가 있어서요. 그런 분들의 인정으로 제가 이렇게 다시 무사하게 돌아온 걸요.”¹⁸⁾ 라고 대답한다. 그렇게 돌아온 형은 몇 년간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이라도 하려는듯 집 주변에 과수를 비롯한 나무를 심으며 수림을 일군다.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다시 집을 떠나고 만다. 이제 어머니가 없는 자리에, 측은한 빗새를 위해 ‘나무’를 심는 역할을 동생(사내)이 떠맡는다. 사내는 그렇게 나무를 심으며 빗새와도 같은 형을 어머니를 대신해 기다린다.

빗새와도 같은 형을 기다리던 사내는 어느 날 그 수림을 찾아든 시인을 만나게 된다. 도시 생활에 지친 시인은 우연히 그곳을 지나다가 자신의 지친 영혼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는 공간과 마주치게 된다. 노을이 질 무렵까지 한 나절을 그 자리에서 망연히 앉아 있던 시인이, 사내에게는 빗새의 형상으로 보였음은 물론이다. 하여 그를 도와주기로 한다. 시인은 우선 땅만이라도 산 다음에 돈이 더 생기면 동지를 틀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사내는 발주인과 협의하여 계약금도 없는 계약을 성사시킨 다음, 집 자리를 제외하고 나무를 심어준다. 그러나 시인은 결국 돈을 마련하지 못해, 그 땅에 동지를 틀지 못한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비명에 죽었다는 시인을 위해, 사내는 못 이룬 양택(陽宅) 대신에 음택(陰宅)이라도 그 땅에 마련해주고 싶어 했지만, 이미 화장하여 강물에 뿌려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는 여전히 나무를 심으며 빗새들을 기다린다. 그러다가 나그네를 만나게 된 것이다.

이러 이야기를 전해들은 나그네는 사내를 처음 보았을 때 나무로 보였던 사면에 대해 깨우치게 된다. “그는 한 마리 빗새의 새였고 주인 사내는 숲속의 나무였다. 그리하여 새는 나무를 보

18) 앞의 책, 114면.

있고 나무는 다시 새를 본 것이었다. 낮모른 집을 따라 들어와서도 그토록 마음이 편해진 것 역시 거기에 곡절이 있었던 것 같았다.” 이어서 나그네는 사내에 대한 이런 해석으로 이어간다.

사내의 그런 마음 씩씩이는 이미 그의 형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착각이 아닌 실제의 자기 형이었다 하더라도, 집을 떠나간 형은 이제 그 빛새가 되어 숲을 찾아오고 있었다. 사내도 이젠 그의 노친네가 옛날 당신의 아들을 대신한 그 한 마리 빛새만을 위해 동백나무를 심지 않았듯이, 그의 숲을 지나가는 모든 피곤한 길손들을 그의 빛새로 맞아들이고 있는 것이다.¹⁹⁾

빛새를 위해 나무를 심는 사내의 마음은 근대 이후 나무를 남벌(濫伐)하면서 세속적인 문명을 이룬 사람들의 세계관에 전면적인 반성을 촉구한다. 가령 다음의 진술을 주목해 보자.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중심의 관계만을 원했다. 그리고 상대방을 탐욕스럽게 꺾어 이겨서 그를 차지하고 다스리는 관계를 만들려 하였다. 그런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의 얼굴과 자리를 팔려 하였다. 그것은 소유와 지배의 관계였다.”²⁰⁾ 자기 중심의 소유와 지배욕, 그 배타적이고 파괴적인 탐욕으로 타락한 인간 현실에 대한 반성 말이다. 그것은 “사람의 옳은 모습”이 아니며, “원래 사람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²¹⁾가 아님을 작가는 새삼 환기한다.

사내는 자신이 심은 나무를 통해 모종의 수입을 기대한 것도 아니었다. “꽃으로 보라고 심은 나무를 돈거래거리로 생각하기란 세상살이가 너무 각박하고 치사한 느낌이 든다”는 사내는 “그저 나무를 심고 돌보아 왔을 뿐, 그리고 열매를 맺는 나무는 열매를 맺게 해주고, 꽃과 잎이 좋은 나무는 제 꽃과 잎이 보기 좋게 피어나도록 돌보아 왔을 뿐 그것들에다 생계를 기대어 본 일은

19) 앞의 책, 117면.

20) 앞의 책, 130면.

21) 앞의 책, 130면.

없”²²⁾다고 했다. 또 시인을 위해 남의 땅에 심은 나무를 사내의 수림으로 옮겨올 생각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사내는 이렇게 대답한다. 이는 老子가 강조한 비 공을 이루어도 그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는 ‘功成而弗居’와 무위(無爲)로 모든 것을 이룬다는 ‘無爲而無不爲’²³⁾의 세계와 상통한다.

한번 심겨 준 나무를 뿔 맘시 다시 파옵니껴. 나무들은 거기서 그냥 자라 가게 두었어요. 푸나무 한 그루도 다 제 생명을 지녀 사는 것이라 나무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지요. 생명 있는 것을 이리저리 파 옮기는 버릇들이 많은디, 그런 건 모두 그 남의 생명을 너무 내 것이라고들 여기는 탓일 게요. 남의 생명을 내 것이라 우기면 내 생명도 누군가 그렇게 우기고 나설 일이 생길 거 아니겠소. 사람은 사람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각기 제 자리에서 사는 겐니다. 나무의 생명도 그만 권리는 있는 거외다……²⁴⁾

이런 이야기에서 나무와 새는 물론 서로 나눔을 통해 조화를 이루고 더불어 사는 존재들이다. 물론 「새와 나무」에서 좀더 전경화되는 것은 나무의 초상이다. 어머니의 나무도 그렇고 사내의 나무도 일종의 우주수(宇宙樹)다. 수직적으로는 땅과 하늘, 물과 흙과 공기를 순환시키고, 수평적으로는 새로 하여금 자신의 잎과 열매와 더불어 춤추게 한다. 그것이 나무의 삶이다.²⁵⁾ 그런 나무들이 신성한 숲을 이룬다. 그 숲에서 모든 존재들은 신비롭고 아름답고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다. 이 같은 나무의 우주적 역할은 연민과 동정, 나눔과 베품의 윤리학과 연계되면서 생태학적 진정성과 심미적 감동을 준다. 그와 같은 나무를 키울 수 있었던 어

22) 앞의 책, 103면.

23) 老子, 『道徳經』37章

24) 앞의 책, 131~132면.

25) 여러 소설에서 이청준은 나무에 대한 각별한 생태학적 관심을 보인다. 예컨대 「목수의 집」에는 “나무의 기운은 원래 햇빛과 땅기운과 비바람을 함께 안고 화동하던 것”(이청준, 「목수의 집」, 『목수의 집』, 열림원, 2000, 20면)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머니와 사내의 행위는 다름아닌 '감싸안기'의 생태 윤리로 요약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빚새들을 감싸안으려 했던 그들의 마음 바탕과 윤리 감각이 그와 같은 생태학적 우주수를 키울 수 있었던 것이다.

老子가 보는 바람직한 사회는 아직 구분되기 이전의 순수한 상태가 잘 유지되고 모든 것이 자연의 원리에 따라 저절로 '감화'되어 가는 사회였다. 테오도르 로작이라면 생태학적 무의식을 억압하지 않는 사회이다. 이청준의 「새와 나무」에서 그린 비유적 형상은 바로 그와 같이 생태학적 무의식이 억압되지 않는 자연 상태에 다름 아니다. 거기서 새와 나무는 각각 자연 상태의 행위 원칙인 '自然 無爲'처럼 행한다. 노자가 '自然'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것은 누구든지 계급적 요구에서가 아니라 모두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신의 천성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허락되어야 함을 주장하기 위해서이고, 또 각각 다른 욕구들이 조화와 평형을 이룰 수 있도록 '無爲'라는 관념을 내 놓았다. 아울러 노자가 자연 무위라는 관념을 정치에 운용하는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최대의 자주성을 가지고 각자의 특수성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청준의 「새와 나무」의 세계는 곧 자연 무위의 세계 그 자체에 대한 동경의 형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생태학적 무의식에 바탕을 둔 동아시아적 생태 인식의 보편성과 맞닿아 있다.

IV. '기다리기'의 생태 윤리

「빚새 이야기」나 「새와 나무」에서 우리는 또한 '기다리기'의 생태 윤리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기다리기 혹은 기다림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매우 중요한 삶의 미덕으로 여겼던 것으로,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곧 생태학적 무의식에 기반한 생태 윤리를 실천

할 수 있다는 의미와도 통한다. 새를 기다리는 나무, 집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은 근대 이후 주체 중심주의나 이성적 자아 중심주의와는 다른 것이다. 주체 중심의 사유를 넘어서서 주체 안에 타자의 자리를 넉넉하게 마련하지 않고서는 형성되기 어려운 윤리 감각이다. 작가 이청준은 그 기다리기의 생태 윤리를 일차적으로 대지적 모성에서 발견한다. 이미 논의한 바, 「새와 나무」에서 객지로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 마음은 장편 『축제』에서 집 떠난 손녀(용순)를 기다리는 할머니의 마음으로 변주된다. 집밖을 떠돌던 큰아들이 밖에서 데리고 들어온 손녀가 바로 용순이다. 적통의 자식이 아닌 까닭에 용순은 등지 없는 빗새처럼 가련한 신세를 면치 못한다. 아비마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용순은 할머니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로부터도 가족 대접을 받지 못한다. 그러다가 돌연 집을 떠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자 할머니는 늘 용순을 기다린다. 그런데 『축제』에서 작가는 그와 같은 기다림의 이야기를 쓴 사람의 기다림에 대해서 언급한다. “그 이야기를 쓴 사람, 그에게 그런 기다림이 없었다면 노인네의 기다림을 알 수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대신해 쓸 수가 있었겠어요?”²⁶⁾ 작가에게도 그런 기다림이 있었기에, 어머니의 기다림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러기에 그런 기다림의 이야기를 쓸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와 같은 기다림의 미덕내지 기다리기의 생태 윤리는 배타적 물신 풍조가 횡행하는 근대 자본주의 문명의 지배적 윤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경쟁이나 성장의 가치가 존중될 때, 그와 같은 기다리기의 생태 윤리는 시대착오적인 감각으로 치부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복이나 파괴가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의 지평 내지 생태학적 상생의 지평에서 보면 기다리기의 생태 윤리는 매우 중요한 미덕이 된다.

26) 이청준, 『축제』, 열림원, 2003, 196면.

기다리기의 생태 윤리는 타자 지향의 윤리와도 관련된다. 주체 중심일 때 기다림보다는 성급함이 앞선다. 타자를 넉넉하게 환대할 마음바탕이 있을 때라야 기다리기의 생태 윤리는 실천의 지평을 알게 된다. 두루 알다시피 근대 문명을 이룬 기저에서 힘의 정치학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힘의 정치학은 힘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 상극의 불화를 낳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힘의 정치학을 생태학적으로 반성하면, 타자의 윤리학으로 인식론적 전환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신들의 천국』(1976)에서 이청준은 이미 그와 같은 생태학적 인식을 보인 바 있다. 이 장편에서 작가는 힘의 정치학을 넘어서 타자의 윤리학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존재론적 인식의 깊이를 새롭게 다지지는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표명했다.

“난 이런 생각을 자주 해왔어요. 눈을 뜨고 찾아내려고만 하면 이 땅 위엔 아름답고 귀한 것이 얼마든지 많을 거란 생각 말이요. 하지만 그 아름답고 귀한 것들은 우리가 눈을 뜨고 찾아내지 않으면 함부로 모습을 드러내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눈에도 띄어본 일이 없이 우리 눈앞에서 숨어 사라져버리는 것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중략... 바로 저 나무 뿌리가 그런 것 중의 하나지요. 산에만 올라가면 저런 고목나무 뿌리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모두가 땅속에 숨어 있어요. 놔두면 제물에 썩어 없어져버릴 것들이지요. 하지만 내가 올라가 땅을 파고 썩어가는 뿌리를 찾아주면, 저것들은 제 몫의 아름다움을 되찾아 지니고 저렇게 내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사람들 현상의 실체가 뭔가를 찾아낸다고 생유리창을 주먹으로 두들겨 깨기도 하고, 새끼줄을 이리저리 얽어매는 따위의 별스런 짓까지 하는 모양입니다만, 이 나무 뿌리는 그렇게 힘이 들 필요가 없어요. 일부러 뭘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제가 원래 지닌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그 숨어 묻혀 있는 아름다움을 찾아내주기만 하면 그만이니깐. 놔두면 그냥 땅속에서 썩어 없어질 나무 뿌리를 찾아내주기만 하면 그만이란 말이우다. 그게 예술이 안 됩니까. 그래선 예술 작품이 안 되는 거예요?”²⁷⁾

인용문의 내용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다. 아름답고 귀한 것은 어느 경우나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은 성찰하고 발견하는 자에게만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대상과 주체 사이의 영혼의 교감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덧붙여 “일부러 뭘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는 대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새와 나무」에서 사내의 의견 또한 그러했다. 원래 존재하는 것, 혹은 자생적인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경로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얘기다. 인위적이거나 정치적인 조작에 대한 항변의 메시지다. 「새와 나무」에서도 그러했듯, ‘自然 無爲’(노자)의 정조는 여기서 되풀이 확인된다. 주인공 조백현이 이 대목에서 단지 예술론만을 펼치고자 한 것은 아니다. 자유와 사랑의 실천적 화해라는 가능성 혹은 소망의 아름다움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성찰하는 우리들의 인식안의 중요성을, 나아가 주체와 타자/대상 사이의 영혼의 교감의 중요성을, 게다가 삶과 예술이 넘나들 수 있는 가능성의 지평을, 이런 식으로 에둘러 이야기한 것이다. 말하자면 이 대목에 작가 이청준의 인간관이나 자연관, 예술관이나 소설관이 함축적으로 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매우 근본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과 교류하되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현실을 넘어서 “보다 인간다운 삶, 보다 행복스런 우리들의 삶 또는 그 삶에 대한 깊은 사랑”²⁷⁾을 소설로 꿈꾸는 이청준에게 있어서, 바로 이런 생각을 우리 모두가 일반 의사로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은 매우 간절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런 생각은 생태학적 무의식으로 열린 것이며, 그와 같은 소망스런 삶을 위해서라도 기다리기의 생태 윤리와 타자 지향의 윤리 감각은 매우 소중한 것이라고 작가 이청준은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27) 이청준, 『당신들의 천국』, 열림원, 1976/2000, 366~367면.

28) 이청준, 「지배와 해방」, 『자서전들 쓰십시오』, 열림원, 2000, 134면.

요컨대 기다리기의 생태 윤리와 관련되는 타자 지향의 윤리 감각은 힘의 정치학의 대안 윤리이다. 작가 이청준에게 있어서 그 바탕은 기다리기의 생태 윤리이다. 주체를 앞세우며 무한 경쟁하기보다는 타인을 내 안에 초대하고 환대할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것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등지 없는 새를 기다리는 나무의 마음이요, 집 떠나 객지를 떠도는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과 통한다. 여기서 나무의 마음이나 어머니의 마음은 배타적 자아 혹은 본질주의적 자아를 부정할 때 허심탄회하게 형성되는 생태 윤리이다. 주체의 독자적인 본질이 강조될 때, 타자의 자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주체와 타자, 인간과 자연이 유기적인 순환 과정을 통해 생명력이 넘치는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도가적 인식 태도나 심층 생태학적 사고를, 이청준의 소설은 보여준다. 인공적 오케스트라가 아닌 자연에서의 나무와 새의 합창을 통해 진정한 삶의 지평을 응시하고자 한 작가가 바로 이청준이다.

V. '묻어두기'의 생태 윤리

이청준 소설의 심층 의식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화해와 생명, 이해와 용서, 타자의 윤리학은 광주 체험 이후 더욱 깊이를 더해가다가 21세기 들어 그 문학혼의 버리를 보여주는 형상을 보인다. 생애 마지막 소설집이 된 『그곳을 다시 잊어야 했다』의 세계를 새삼 주목해야 하는 까닭도 바로 거기에 있다. 먼저 역사적 이데올로기적 삶을 반성하고 존재론적 성찰의 깊이를 보인 「지하실」이 주목된다. 한 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과거사 청산에의 소용돌이 가운데 발표된 「지하실」에서, 작가는 한국전쟁기에 좌우 편싸움의 속절없는 현장이었던 역사의 지하실로 우리의 성찰을 안내한다. 문제는 그 상처의 현장을 드러낼

것인가, 물어둘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서 작가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내기보다는 물어둠으로써, 오늘의 상처를 줄이는 쪽에 무게를 둔다. 문제의 지하실은 좌우가 편을 갈라 죽이고 죽임을 당했던 한국전쟁의 상흔을, 그 어둠의 그림자를 담고 있는 공간이다. 옛 집을 복원하면서 주인공은 그 지하실까지 복원하고 싶어 한다. 어둠의 그림자를 환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그 어둠의 공간은 복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일을 맡아 하는 성조 씨의 생각은 다르다. 주인공처럼 일찌감치 고향을 떠나 살았던 사람들과는 달리 그 역사적 상흔의 현장에서 줄곧 살아왔던 자신들은 그 상처를 들추어내는 일을 결코 탐탁하게 여길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상처의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누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고 받았는지를 잘 알지만, 그럼에도 그 지하실을 물리적으로도 묻고 심리적으로도 가슴에 묻어둔 채 살아온 터였는데, 새삼 그것을 들추어내어 상처를 덧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조 씨의 입장은 이렇게 발화된다.

아까 그 원옥씨, 그 날 밤 이야기를 하다 말고 슬그머니 자리를 뜨고 말지 않던가. 이 동네선 그런 일에 당사자가 아니면 말이나 참견을 피해 모른 척 덮고 살아. 지금 나나 자네처럼 어느 면 당사자격인 처지에서조차 무엇이 사실인지 믿기가 어려운 판에 하물며 남의 지난 일에는. 더러는 바로 당사자들까지도. 내 맞뜻 알아들여? 그런 이 동네에 저 지하실을 되살려 놓으면 그거야말로 지금까지 잊고 지내온 험한 내력을 죄 되살려놓는 일 아니겠어? 그래서 새삼 동네 사람들 마음을 이쪽 저쪽 시끄럽게 갈라놓으면 무슨 좋은 노릇이 생기겠어. 우리가 다 죽고 난 뒷세상 일이라면 몰라도 그 시절을 직접 살아낸 사람들이 이쪽 저쪽 입 다물고 지낼 망정 아직도 서로 이웃해 살고 있는 마당에! 어느 시절 어느 한 쪽에 그럴 힘이 있다고 제 편에 이로운 것만 골라 살리래서 쓰겼난 말여.²⁹⁾

29) 이청준, 『지하실』, 『그곳을 다시 잊어야 했다』, 열림원, 2007, 134~135면.

그러니까 어떤 진실은 밝히는 것보다는 묻어두는 것이 훨씬 인간적일 수 있다는 것이 성조 씨의 생각이다. 묻어두는 것이 오히려 공동체의 상생과 조화에 도움이 된다는 이런 생각은 곧 ‘묻어두기’의 생태 윤리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이때의 묻어두기는 앞서 살핀 감싸안기의 생태 윤리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감싸안을 수 있을 때 묻어둘 수 있다. 혹은 감싸안기 위해 묻어두고자 하는 것이다. 일찍이 「숨은 손가락」, 「가해자의 얼굴」 등을 집필했던 작가답게, 역사의 격랑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에 대한 보복만을 일삼아온 무반성적 경향에 대한 간접적 비판을 보이면서, 부지불식간에 가해자가 될 수 있었음을 반성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진정한 반성과 용서, 그 바탕 위에서 넉넉한 대공정의 세계를 응시하고 실천할 수 있을 때, 존재를 속절없는 역사적 격랑에서 구하고 진정한 의미를 탐문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비친다.

이런 성찰은 「이상한 선물」에서 다양한 설화적 맥락 찾기와 더불어 좀 더 진전된 생철학적 비전 모색으로 나아간다. ‘그림자 도둑 이야기’를 비롯한 여러 설화들은 공동체와 개인의 상호 안녕을 위해 서로 감싸주고 의뭉스럽게 속아주고 묻어두고 그러면서 서로 진실을 나누었던 삶의 풍경들을 보여준다. 드러내기보다는 감싸고 묻어둠으로써 오히려 진실의 빛을 밝힐 수 있었던 옛 공동체 성원들의 속 깊은 이야기들이 얽히고설키면서, 오랜 인식의 지혜를 오늘에 되살리고자 한다. “제 맘속에다 그걸 지냈으면 눈에도 보일 수 있었겠제.”³⁰⁾ 이 문장을 “눈길을 바꿔 보면 세상 일이란 사람 따라 세월 따라 다 그렇게 달라 보이는 법이여!”³¹⁾와 겹쳐 읽는다면, 작가가 이른 대공정의 세계가 단순한 상대주의가 아니라 도저한 인식의 종합 결과임을 눈치채게 된다.

30) 이청준. 「이상한 선물」. 앞의 책, 183면.

31) 이청준. 「지하실」 앞의 책, 137면.

‘묻어두기’ 혹은 ‘감싸안기’의 지혜가 좀더 적극적인 심리적 전략으로 전개되면 ‘잊기’로 현상화된다. 「그곳을 다시 잊어야 했다」와 「태평양 항로의 문주란 설화」 같은 작품이 그런 경우다. 「그곳을 다시 잊어야 했다」에서 유일승 씨는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조국과 조국의 전쟁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삶을 용서하기 위해서 조국을 잊어야 했음을 어렵사리 이야기한다. 「태평양 항로의 문주란 설화」에서 꼬로나 씨의 조부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쫓겨나듯 떠밀리듯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잊기 전략으로 역설적으로 기억하며 살아갔던 그들, 이 땅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아야 하나? 「부끄러움, 혹은 사랑의 이름으로」에서 그것은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으로 나타난다. 유럽 여행 중 한국 출신 입양아를 만난 임 감독의 그런 느낌을 통해, 작가는 지난 역사와 개인의 실존을, 국가의 허물과 국민의 얼룩을 웅숭깊게 감싸안으면서, 이데올로기가 민족주의에 입각한 명분 혹은 대의가 아닌 존재의 숨결과 족적을,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고자 한다.³²⁾

그런가 하면 장편 『흰옷』에서는 해방기의 혼돈과 전쟁기의

32) 이와 같은 작가의 인식은 그의 존재론적 언어관이나 판소리 투 민간 수사학과 적절히 어울린다. 아니 어쩌면 민간 수사학으로 투시한 인식이요, 민간 수사학을 통해 꿈꾼 세계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할 것이다. ‘남도사람’ 연작을 통해 거래의 정서와 한의 구경(究竟)을 탐문하고, 『토끼야, 용궁에 비술가자』, 『놀부는 선생이 많다』 등의 판소리 동화를 통해 거래의 정한 어린 말법을 새롭게 가다듬은 작가가 구사한 민간 수사학이어서 더욱 믿음이 간다. 인상적인 소설 「천년의 돛배」에서 물으로 출가한 말을 기다리는 어미의 마음이나 바다 건너 어미를 그리는 딸의 마음의 애절함, 혹은 끝내 만나지 않은 그리움의 응어리들이 민간 수사학으로 피어나는 모습에 우리는 놀란다. 이를테면 “우리 딸아기는 한번 가고 나니 해가 몇 번씩 바뀌어도 영영 소식을 들을 길이 없네그려. 병풍에 그린 닭이 꼬꼬 울면 울거나, 화로에 구운 밤이 짝이 나면 울거나. 우리 아기 귀한 아기 네가 언제 다시 나를 보러 올거나.”(「천년의 돛배」, 『그곳을 다시 잊어야 했다』, 29면) 같은 부분에서 생생하게 느낄 수 있듯이, 이청준은 민간 수사학으로 장삼이사들의 삶의 애환을 위무하면서 감싸안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사학적 성찰과 의장은 묻어두기, 감싸안기, 잊기 등의 심리적 성찰과 조응되면서, 현묘한 대공정의 세계를 서사적으로 빚어낸다. 대가다운 서사적 비의를 알게 하는 대목이다.

마성적 폭력으로 인해 일그러진 우리네 정신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방안으로 풀어내기의 생태 윤리를 펼쳐 보인다. 작가는 남도지방의 버꾸놀이가 전쟁기의 악몽을 거치면서 예전 같은 무한 포용의 생태학적 신명기를 잃고 거친 섯소리로 변해버린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로운 영혼들이 허심탄회하게 어울릴 수 있었던 예전의 신명을 회복하기 위한 풀어내기의 진혼을 시도한다. 소설 속에서 영매자(靈媒者)는 간절하게 축원한다. 이 땅에서 벌어진 부정하고 불순한 것들을 씻어내고,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 마음 속에 웅크리고 있는 어둡고 더럽고 부정하고 욕된 생각들을 모조리 깨끗이 씻어달라고 말이다. “헛된 이념과 사상의 사슬, 대립과 미움과 원한과 복수의 사슬, 거짓과 속임수와 미망의 사슬”³³⁾을 끊어 달라고 말이다. 그렇게 해묵은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소망스런 꿈을 펼쳐 보인다.

망자들은 망자의 길을 가계하고, 생자들은 제 생자다운 세월을 살게 하고……。 그리고 저 아침풀잎 같은 고운 아이들에겐 저들에게 더 잘 맞는 저들의 노래 속에 소복보다 더 고운 옷을 입고 고운 춤을 추게 하고, 그래서 이쪽이고 저쪽이고 이제는 이 산하가 온통 저들의 행복스런 춤판이 되게 하고……。 저들은 아직도 우리들의 소망이요, 꿈이니께. 저들이 이젠 이 땅의 내일의 모습이니께……。 그러니 참으로 고맙고 부끄럽구나. 그동안도 저들은 저렇듯 힘차고 꿈게 자라주고 있었으니. 우리의 꿈은 옛날에 실패했으되, 그 꿈이 저들에게서 저렇듯 다시 스스로 내일의 문을 열어 건강하고 아름답게 어우러져가고 있으니…….”³⁴⁾

이청준 소설에서 묻어두기, 감싸안기, 잊기, 풀어내기 등의 생태 윤리는 심층 생태학과 문학의 기본 정서인 연민에 입각한 함께 아파하기의 생태 윤리와도 연계된다. 예술가소설인 「날개의

33) 이청준. 『흰옷』. 열림원. 1999. 250면.

34) 앞의 책. 250면.

집」에서 세민은 스승 유당으로부터 그림을 배운다. 유당은 “흙을 파고 갈면서 그 흙과 땅에서 배운 것, 그 흙과 땅, 힘겨운 농사일과 우리 사람살이에 대한 사랑으로 그리”³⁵⁾라고 가르치지만, 세민은 그 경지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자 유당은 “병이로구나, 흙을 후벼파고 살을 까발리면서도 이 산하가 깊이 품어온 아픔을 왜 몰라……”³⁶⁾라며 탄식한다. 그러면서 “네 몸 속 뺏속까지 스며 들고 가득 차도록 깊이 안아들이거라. 그 아픔으로 다시 흙을 꺼안고 산을 꺼안는 것, 그것이 다름아닌 사랑인 게다. …중략… 아마도 그런 아픔과 사랑을 배움으로써만이 비로소 네가 진심으로 소망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될 게다.”³⁷⁾라고 말한다. 이런 스승의 가르침을 새기며 절차탁마한 세민은 심한 신열기 속에서 이런 그림을 그린다.

빈 들녘을 그리고 새털구름 드높은 하늘을 그리고 하염없이 한가로운 새의 비행을 그렸다. 오래 뺏개쳐둔 일이라 물론 그림이 쉽지 않았다. 손이나 손목 놀림이 무디어져 산에서 익혔던 먹붓질마저도 마음을 잘 따라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고약한 신열기가 겹쳐 가실 때까지 몇 번씩이고 그림을 다시 고쳐 그렸다. 나중에는 그 들녘과 하늘과 새뿐만 아니라 화면 아래쪽에 한 마리 소의 형상을 그려 넣기 시작했다. 몸 속에 괴로운 신열기를 참으며, 그로 하여 그 드높이 한가로운 새의 비행을 더욱 아프게 꿈꾸고 누워 있는 소, 그 꿈마저 괴롭게 앓고 있는 소였다.³⁸⁾

이렇게 그린 세민은 이전과는 그림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낀다. “신열기를 앓는 소로 하여 새의 비행은 더욱 드높고 유유했다. 눈부신 자유, 황홀한 꿈이었다. 그러나 화면 전체로 보면

35) 이청준, 「날개의 집」, 『목수의 집』, 100면.

36) 앞의 책, 101면.

37) 앞의 책, 101면.

38) 앞의 책, 111면.

그것까지도 그 소의 눈길로 하여 오히려 뼈가 시린 자유, 황홀한 절망이 되고 있었다.”³⁹⁾ 땅에서 신열기를 앓고 있는 소와 하늘을 유유히 비상하는 새의 대조는 단순한 대위법적 구성에서 그치지 않는다. 하늘을 나는 새의 꿈을 응시하는 땅의 소의 시선이 있기에 그 둘은 둘이 아니라 서로 스미고 짜이면서 하나의 전일적인 생태학적 우주를 형성한다. 그것은 물론 하늘을 나는 새의 꿈을 동경하며 앓는 소와 그 그림을 그린 화가 세민이 함께 아파한 결과였던 것이다. 작품 말미에서 세민이 “중생이 앓으니 나도 앓는다. 마지막 중생의 아픔이 나오면 나도 나오리라.”⁴⁰⁾는 부처의 말씀을 떠올리는 장면은 각별한 주목을 요한다. 함께 아파하기의 경지를 함축하고 있는 까닭이다. 그토록 함께 아파할 수 있을 때, 인간의 삶과 예술은 소망스런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고 이청준은 생각했던 것 같다. 감싸안고 묻어두고 잊고 풀고 함께 아파하며 살고 그런 삶을 바탕으로 예술적 황홀경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세민의 예술적 꿈이자 작가 이청준의 문학적 소망이었던 것이다.

VI. 맺음말

이청준 소설은 근대 이후 억압된 생태학적 무의식을 향해 열린 접근을 하고, 그 접근을 위한 구체적 생태 윤리들을 모색했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가 소설을 통해서 꾸었던 ‘말의 꿈’은 생태학적 전체성의 상실과 회복의 드라마와 관련된다. 특히 그가 후기에 강조한 밤 산길 독행자의 소설 길은 생태학적 무의식을 향해 열린 길이다. 이 길은 근대성과 관련된 훼손과 광기로 인해

39) 앞의 책, 110면.

40) 앞의 책, 113면.

억압되었던 생태학적 무의식을 살아있는 기록으로 귀환케 하는 서사적 여정이다. 이와 같은 생태학적 무의식으로 열린 길에서 이청준이 보인 생태 윤리의 세 측면을 살펴보았다. ‘감싸안기’, ‘기다리기’, ‘묻어두기’의 생태 윤리가 바로 그것이다.

「새와 나무」에서 보이는 연민과 ‘감싸안기’의 생태 윤리는 생태학적 진정성과 사람살이의 기반을 환기한다. 작가가 공들여 형상화한 우주수의 상징성과 더불어 연민과 동정, 나눔과 베품으로 심화되는 감싸안기의 생태 윤리는 생태학적 진정성과 심미적 감동으로 이어진다. 「새와 나무», 「빛새 이야기», 『축제』, 『당신들의 천국』 등에서 보이는 ‘기다리기’의 생태 윤리는 기다림의 미덕을 통해 생태학적 전체성의 회복을 예비한다. 기다리기는 타자 지향의 윤리와도 연계되는 것이면서 배타적 자아의 부정적 모습을 반성케 하고 유기적 순환 과정을 통한 생태학적 생명력이 넘치는 관계를 유지하게 한다. 「지하실», 「이상한 선물」 등 후기작에서 강조된 ‘묻어두기’의 생태 윤리는 드러내기보다는 감싸고 감춤으로써 오히려 진실의 빛을 밝힐 수 있었던 옛 공동체 구성원들의 속 깊은 윤리 감각을 되살린 결과이다. 그것은 감싸안기, 잇기, 풀어내기와도 관련된다. 이청준이 강조한 감싸안기, 기다리기, 묻어두기, 풀어내기 등의 생태 윤리는 전반적으로 함께 아파하기의 생태 윤리와 관련되며, 그것을 통해 예술적 승화 작업을 펼쳐보인 작품으로 「날개의 집」을 다루었다.

논의의 편의상 감싸안기, 기다리기, 묻어두기를 따로 나누어 언급했지만 사실 그것들은 서로 긴밀하게 관련된, 여럿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여럿인 생태 윤리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청준의 소설에서도 그와 같은 유기적 융합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생태 윤리들은 오래된 생태학적 무의식으로 열린 길 위해서 서사적으로 재구성된 것들이다. 이와 같은 생태학적 무의식과 생태 윤리 감각들은 이청준의 ‘말의 꿈’을 심원하게 하는 중심 요소들이다. 이 논문에서 다룬 작품들 이외에도 이청준의 ‘고향/시골’

지향의 이야기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생태학적 무의식과 생태 윤리들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도시'적 근대적 이야기들에서 보이는 비판적 부정적 인식의 심층에서도 우리가 살핀 생태학적 무의식을 발견할 수 있다. 그와 같은 비판적 인식을 낳는 기저에 억압되었던 생태학적 무의식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이청준. 1985. "존재적 언어와 관계적 언어 사이에서." 『말없음표의 속말들』. 나남.
- 이청준. 1998. "새와 나무." 『서편제』. 열림원.
- 이청준. 1999. 『흰옷』. 열림원.
- 이청준. 1976/2000. 『당신들의 천국』. 열림원.
- 이청준. 2000. "지배와 해방." 『자서전들 쓰십시다』. 열림원.
- 이청준. 2000. 『인문주의자 무소작씨의 종생기』. 열림원.
- 이청준. 2000. "날개의 집." "목수의 집." 『목수의 집』. 열림원.
- 이청준. 2003. 『축제』. 열림원.
- 이청준. 2005. "밤 산길의 독행자(獨行者)들." 『머물고 간 자리』. 문이당.
- 이청준. 2007. "귀항지 없는 항로." "지하실." "이상한 선물." 『그곳을 다시 잊어야 했다』. 열림원.
- 박이문. 1998. "생태학적 문화의 선택." 『문명의 미래와 생태학적 세계관』. 당대.
- 송상용 외. 1999. 『생태문제와 인문학적 상상력』. 나남출판.
- 이남호. 1998. "문학은 녹색이다." 『녹색을 위한 문학』. 민음사.
- 장남기 외 공저. 1993. 『생태학』. 아카데미서적.
- 최진석·우찬제. 2000. "이청준 소설의 도가적 해석." 『한국문화이론과 비평』8집.
- Metzner, Ralph. 1995. "The Psychopathology of the Human-Nature Relationship." Theodore Roszak, Mary E. Gomes, & Allen D. Kanner ed., *Ecopsychology: Restoring the Earth Healing the Mind*. San Francisco: Sierra Club Books.
- Rozzak, Theodore. 1992. *The Voice of the Earth*. New York: Simon & Schuster.
- Rueckert, William. 1996. "Literature and Ecology." Cheryll Glotfelty & Harold Fromm ed., *The Ecocriticism Reader*. The Univ. of Georgia press.
- Seed, John. 1985. "Anthropocentrism." Bill Devall & George Sessions ed., *Deep Ecology*. Salt Lake City: Gibbs M. Smith Inc.
- 老子. 『道德經』
- 莊子. 『莊子』

Ecological Unconsciousness and Ecological Ethics:
Chung-jun Lee's Fictions

WU Chan Je
Sogang University

For Chung-jun Lee, fiction is a form of 'dream woven with words'; it is spun with the liberty and truths of an individual and the longing for forgiveness and love. Lee tries to delve into and combine liberty and oppression, forgiveness and revenge, ideal and reality, existential language and relational language, and individual truth and collective fantasy. He also yearns for the ecological wholeness that has been sacrificed in the name of modernization. In terms of deep ecology, his works concern the loss of ecological wholeness and the drama of recovery. In particular, the symbol of a path that is plunged into the darkness of night and walked by a solitary wayfarer as a representation of an ecological unconscious is emphasized in the second half of his career. This narrative itinerary brings back ecological unconsciousness, which has been repressed by the modernity-related rupture and insanity.

In this respect, it is worth paying attention to the three attitudes of Lee's ecological ethics: embracing, waiting, and burying. The ethical attitude of compassion and *embracing*, which is remarkable in "Bird and Tree," reminds us of the deep truthfulness of humankind as the basis of our daily lives. The attitude of *waiting*, as we can see in "Bird and Tree," "Rainbird Story," *Feast*, and *A Paradise of Your Own*, is a significant virtue in terms of the symbiosis that we ought to seek for. The last one of burying, as revealed in the later works such as "Basement" and "Strange Present," makes it possible for the members of the communities to conceal and hide deep truths rather than expose them to the

scandalous eyes of others so that the light of truth can paradoxically shine. The attitudes are quintessential in making Lee's world of the dream woven with words.

Key Words : ecological unconsciousness, ecological ethics, the ethical attitudes of embracing, waiting and burying, ethics of other, "Bird and Tree", "Rainbird Story", "A House of Wings", *Feast, A Paradise of Your Own*, "Basement", "Strange Present"